

직접 보아야 믿을 수 있는가?

다시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의 큰 질문의 답(big question)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큰 질문 (big question)은:
직접 보아야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이 질문의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배심원들이 큰 결정을, 삶을 바꾸는 결정을

직접 범죄를 목격하지 않았지만, 내리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배심원들은 증언을 듣습니다. 증인에 귀를 기울입니다.

배심원들은 증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증인들이 거짓이 없고,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삶을 바꿀만한 크고 결정적인 것들에 결정을 내립니다. 비록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것을 바탕으로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예는,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 2000년 뒤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 그 장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직접 목격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 2천년 후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본 것을 적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증인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을
주의를 기울여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책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4권의 책은 나사렛 예수의 삶에 대해
신뢰성이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들 중에 증인이 직접 쓴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은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쓰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증언들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에 쓰여진 모든 증언들이

진실이라고 믿을지에 대한
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큰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읽은 것이 진실이다.’

라고 말하는 시점에 도달하신다면,
그럼 다음 논리적 단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결정이 매우 큼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질문을 오늘 밤 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읽는 것이
초기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것이 확실한지

이것이 첫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읽는 것이 기록된 것과

동일하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맞는지.

그렇죠. 두 질문이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는 것이
실제로 쓰여진 것과

동일한 것이 확실한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시대에 걸쳐 확실하게 전달되어 왔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컷속말 게임’ 이 있습니다.

혹시 어려서 컷속말 게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컴퓨터 게임이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는

컷속말 게임이 정말 유행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뭐하고 놀까? 하면, 맞아!
우리 컷속말 게임 하자!

하는 방법은 우선 모두 둘러앉아서,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짧은 메시지를 다음 사람에게
컷속말로 전달합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컷속말로 속삭여서 전달합니다.
모두 돌아서, 마지막 사람이 그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하하하’하면서 웃었죠.
컴퓨터 게임만큼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게임만 하려고 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세기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것이

이러한 컷속말 게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읽은 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바뀌었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컷속말 게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가능한 다음 사람이 듣기

힘들도록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삭여서, 일부러...

이 게임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게임을 하신다면,
일부로 조금 말을 바꾸면,

맨 마지막 사람이
말하면, 다 폭소가 터집니다.

그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너무 재미있다! 우리 다시할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해 내려오면서,
세기에 걸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에 대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목적은
누군가를 바보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대에 걸쳐서
그 전에 일어난 것에 대해

읽어 볼 수 있도록 쓰여진 것입니다.

명백히, 세기에 걸쳐서
베껴 쓰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 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뉴스는
다른 세기와 세기에 걸쳐

정말로 많은 사본과 정말로 많은 필사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본이 있기에
다 비교해 본다면, 최초로

뭐라고 썼는지 확실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최초에 쓰여진 것과 동일하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알아보까요?
우리가 읽은 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신할 수 있나요? 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책의 쓰여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직’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자를 당혹하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해 줍니다.
도마의 경우뿐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사람을 언급할 때,

실제 역사적 인물과
실제 역사적 장소들을

매번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셨나요?

이러한 사실들이 틀린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셋째로 복음서는 짜여진 듯하지 않습니다.
‘짜여진 듯하지 않다’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네 복음서가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반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짜여진 듯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공공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짜여진 듯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짜여진 듯 하면,

네 사람이 같이 둘러앉아,
‘우리 어떻게 쓸까?’ 하고

토론해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되지 않았지만, 짜여진 듯하지 않습니다.

언급한 세가지 이유와 함께,
네 번째 이유는 저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책을 사실이라고 믿는
네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변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느라 그들의 몇 년을 완전히
헌신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낙심했고, 세상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전하는 능력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겁쟁이에서 용기있는 전도자로
바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만들어낸 거야,

다 제자들이 만들어 낸거야.' 하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을 만들어 냈을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득 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핍박 받았고, 고통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위해 죽기도 감수하시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위해
죽기도 하죠. 그럼 제가 더 나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인 줄 알고도
그 거짓말을 위해 죽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만들어 냈다면,
제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득 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상 제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자들이 만들어 냈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득 될 것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죽음 뒤에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제자들이
만들어 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이유가 저에게는
우리가 이러한 책을 읽어야 하고,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로,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데 있어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에서

몇 분 동안 이 책에 쓰여진 것을
믿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